국립제주호국원 개원… 첫 독립·호국·민주 통합형 국립묘지

12월 8일 개원, 본격 운영
고 송달선 참전용사 1호 안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8일 국립제주호국원 개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제주지역 보훈가족의 숙원사업이었던 국립제주호국원이 지난달 8일 개원식을 개최한 데 이어 본격 안장 및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제주호국원이 문을 열면서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과 지역 관습으로 육지에 소재한 국립묘지로 안장할 수 없는 제주지역 보훈가족의 어려움이 모두 해소됐다.

제주호국원은 참전유공자 뿐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현충원 안장대상자와 민주유공자까지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통합형 국립묘지로 운영된다.

지난달 8일 열린 개원식은 '대한민국의 영웅, 한라에 오르다!'를 주제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보훈단체장 및 보훈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국립제주호국원은 여섯 번째 호국원이자 열두 번째 국립묘지로 개원하게 됐으며, 이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권역별 호국원이 모두 갖춰지게 됐다"며 "제주호국원의 개원은 제주지역의 모든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분들을 위해 나라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우리 제주인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제주항일의병항쟁', '조천 만세운동', '해녀 항일운동' 등을 통해 국권 회복의 의지를 끈질기게 지켜왔다"며 "6·25전쟁에서는 1,000명 이상의 제주 청년들이 자신의 몸을 던져 조국을 지켰으며, 일제 강점기 해녀들에 이어 126명의 제주 여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해병으로 나서기도 했다"고 말하면서 앞서간 이들의 숭고한 뜻과 혼을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고 말하고 "이럴 때 공동체를 위한 선열들의 희생정신, 헌신의 정신을 깊게 되새겨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지키고, 연대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깨끗하게 단장된 국립제주호국원 입구 모습(왼쪽). 지난달 8일 제주호국원 개원식에 앞서 열린 고 송달선 하사 안장식에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헌화와 분향 후 묵념하고 있다(오른쪽).



적층석벽으로 이어진 현충탑 진입로(위). 제1묘역으로 새로 단장된 충혼묘지(아래).

제주호국원 - 현장 탐방

아름다운 제주 하늘 아래 마련한 따뜻한 보금자리

국립제주호국원은 제주시에서 남쪽 서귀포로 향하는 1139도로를 타고 한라산 중턱을 향해 난 아름다운 도로를 달리다 노루손이오름을 왼쪽으로 두고 올라선 곳에 자리를 잡았다. 지번으로는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이곳이 새 국가유공자들의 보금자리다.

제주호국원이 들어선 곳은 제주시 도심에 속하는 노형동에 포함되지만 도심을 모두 벗어난 한라산 중턱이기에 보존가치가 높은 수목과 여러 야생동물이 함께 사는 곳.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해 호국원 설계과정에서부터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철저히 자연친화적으로 일을 추진했다.

27만㎡의 부지에 총사업비 505억 원이 투입된 호국원은 한라산 경관에서 특별히 튀지 않도록, 최대한 '산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그리며 설계와 시공을 진행했다.

자연과 함께 품위 있는 자태 낮게 펼쳐진 9개의 묘역

한라산으로 본격 접어드는 중턱, 제주호국원 진입로를 들어서면 양쪽에 늘어선 소나무들이 제주의 숲 속으로 들어가듯 호국원으로 안내한다.

숲을 잠깐 지나 호국원 영내에 들어서면 새로 지은 건물들과 현충탑이 눈에 들어온다. 주변을 압도하는 위용은 뒤로하고 전체 숲과 스카이라인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품위 있게 세워져 더욱 정겹게 느껴진다.

건물 초입에서 만나는 제주도 돌담과 흰색의 대형 '국립제주호국원' 글자는 산뜻한 표정으로 방문객을 맞는다. 이어 엄숙한 느낌의 적층석벽을 올라서면 바로 만나는 광장에 높이 19.5미터의 현충탑과 휘날리는 태극기가 나타난다. 광장 뒤편 양쪽으로 펼쳐진 묘역에는 아직 잔디만 깔려진 채 국가유공자의 안식을 준비하고 있다.

9개 묘역 충혼당 1만기 안장 대기실, 제례실 등 시설 설치

호국원은 봉안묘와 봉안당이 각각 5,000기 씩 모두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규모이며, 묘역은 기존 제주시 충혼묘지를 포함해 9개 묘역으로 구획돼 있다. 제주시 충혼묘지는 1묘역으로 호국원 개원과 함께 깨끗하게 새 단장을 마쳤으며, 바로 이웃한 2묘역에 첫 번째 안장자인 고 송달선 하사가 개원식과 함께 자리를 잡고 영면에 들어갔다.

호국원 내에는 봉안시설과 함께 현충관에 안장식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대형 강당, 안내동에 안장관련 서류 접수실과 함께 유족 편의시설인 가족 대기실을 마련했다. 봉안당인 충혼당에는 유족들의 개별추모를 위한 제례실 8개소도 함께 설치돼 유족들의 각종 행사를 돕게 된다.